

Focus

Dynaudio Focus 340



새로운 발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새 시리즈

# Dynaudio Focus 340

글 나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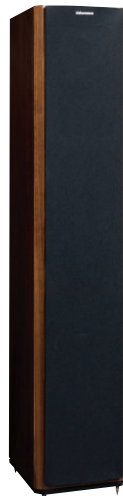
지금까지 필자가 경험했던 스피커 중에서는 아마도 다인오디오 스피커가 가장 많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은 다인오디오의 역사가 가장 35년 이상이나 되었기에 그동안 수많은 스피커가 개발되면서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 그 첫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얼핏 보아 외모에서는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혈통에 따라 음의 퀄리티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인오디오다운 품격 있는 성능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여타 다른 스피커 메이커와는 달리 다인오디오는 스피커 시스템에서 심장과도 같이 가장 중요하다는 유닛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여 다인오디오만의 기본적인 성능은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여타 스피커 메이커들이 주문하는 유닛의 스펙이나 특징적인 구상을 간파할 수도 있기에 스피커 유닛 메이커로서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 인클로저나 패시브 네트워크 등도 그 모두를 자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스피커 시스템들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때를 맞추어 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에도 한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운이 좋게도 필자는 적지 않은 양의 다인오디오 스피커 유닛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양한 우퍼와(6인치·8인치·12인치·15인치) 몇 종류의 스코커, 그리고 에소타와 에소텍 등의 트위터들이었는데, 가장 단순한 1차 필터 방식의 2웨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어깨 너머로 대강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필자가 직접 만들어 보았었다. 한테 그 허접한 패시브 네트워크에서도 제법 그럴듯한 사운드를 내어주어 기쁘고 놀랐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다인오디오에서 만들어진 유닛들의 완성도가 당시에도 높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사유로 12인치와 15인치의 대구경 우퍼는 한동안 필자의 4웨이 멀티앰프에서 저역을 담당하는 주인공으로 발탁되게 되었는데, 그 당당한 위세에 놀려 몇몇 저역 구동 파워 앰프들은 강제 퇴출되어 물러나게 만들기도 했었다. 어쨌든 이러한 인연으로 다인오디오에 대한 필자의 느낌은 항상 나쁘지 않은 편이다.

본지에서 얼마 전에도 다인오디오의 스피커를

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다인오디오의 스피커 시스템을 만나게 되었다. 더 오픈되고, 더 투명하고 디테일하며, 정확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좋다며 자신 있게 광고하는 뉴 포커스 시리즈의 340 시스템이 주인공이다. 이 시리즈에는 북셀프 타입의 2웨이 160과 플로어스탠딩 타입의 260, 맨 말형 뿔인 380이 있는데, 포커스 340은 380과 같은 3웨이 플로어스탠딩 타입의 시스템이지만 채용된 우퍼의 구경이 2cm가 작으며, 트위터에서 380은 에소타를 사용한 것만 다른 바로 밑의 동생이 된다. 그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다인오디오의 스피커들과 외형상 크게 달라진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배플 면이 좁은 직사각형의 인클로저에, 항상 같은 모습의 철재 스파이크, 겉보기엔 거의 동일한 모양의 유닛 등에서 이름만 다르게 달고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실제 재생되는 사운드를 들어보고 나서 다인오디오에서는 절대로 사기(?)는 치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그만큼 한층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

그동안 다인오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유닛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사 후부터 지금까지도 노력을



신선한 음이다. 첼로의 스타카토 음이 민첩하고, 받아주는 바이올린의 음이 살아있는 듯 싱싱하다. 관의 길이가 가장 긴 프렌치 혼이 둔하지 않게 들리고, '뽀뽀' 하는 바순의 텅잉에서도 가식 없는 바순의 음을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바운싱이 좋은 음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외형상 얼핏 보아 동일한 유닛으로 보일지라도 채용되는 시리즈에 따라 그 성능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포커스 340에 채용된 유닛들도 뉴 포커스 시리즈를 위해 새롭게 발전시킨 유닛들이 채용되었다는 말. 뉴 포커스 시리즈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제작된 고강도의 캐비닛 구조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다이내믹함과 스피드감, 깊고 파워풀한 저역에 정확한 응답특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 위상 정합을 위해 최고의 부품 선택과 엄격한 선별,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의 튜닝 후에 태어난 네트워크는 특별하다고 자부한다.

포커스 340에 채용된 우퍼의 구경은 18cm의 MSP 우퍼로 2개씩 채용되었다. 중량과 발열에서 우수한 퓨어 알루미늄 75mm 보이스 코일을 채용했고, 슬림 라인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바스켓 채용과 전보다 훨씬 보강된 마그넷을 보이스 코일의 안쪽에 배치, 자력을 균일하게 하여 음의 재생에서 좀더 다이내믹해졌으며, 32Hz의 낮은 주파수까지 재생이 가능하고, 큰 볼륨에서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가운데 위치한 미드레인지는 15cm의 MSP 유닛으로, 역시 퓨어 알루미늄 38mm 보이스 코일과 새로운 슬림 라인 다이캐스트 알루미늄 바스켓이 채용되었다. 트위터에는 28mm의 패브릭 소프트돔 트위터가 채용되었는데, 패브릭의 안쪽과 밖의 표면을 코팅하고 역시 가벼운 퓨어 알루미늄 코일을 사용한 제품으로 디테일하고 실키한 음을 보장한다.

시청에는 플리니우스의 애니버서리 CD 플레이어에 유니슨 리서치 S9 인터앰프와 함께했다. 정명훈과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 함께한 미사 탕고를 들어본다. 낮게 깔리는 저음현의 음에 장중함이 느껴지고 이어지는 합창에서 낮게 깔리는 산속 아침의 안개처럼 좌우로 펼쳐지는 음성이 실내를 감싸 안는데, 구름사이를 비집고 비쳐대는 햇살처럼 맑고 깨끗한 반도네온의 생생한 음에서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어느 악기보다도 아름다운 음이 목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듯 합창은 우아하고

정갈하며 저음으로 연주하는 콘트라베이스와 첼로의 음에 적절한 밀도감과 함께 스테이지의 넓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첼로의 멜로디와 함께하는 도밍고의 음성은 콘서트에서 듣던 것처럼 생동감이 있고 리얼하며, 안나 마리아 마르티네즈의 메조소프라노도 거칠 것 없이 쪽쪽 뻗어주어 시원하다. 대음량에서도 크기에 비해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오래전 다인오디오 대구경의 우퍼에서 듣던 저음과는 다르더라도 맑고 깔끔한 저역이 마음에 든다.

다음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서 협주곡 1번을 녹음이 잘 된 타첵(Tacet) 레이블로 들어보자. 신선한 음이다. 첼로의 스타카토 음이 민첩하고, 받아주는 바이올린의 음이 살아있는 듯 싱싱하다. 관의 길이가 가장 긴 프렌치 혼이 둔하지 않게 들리고, '뽕뽕뽕' 하는 바순의 텅잉에서도 가식 없는 바순의 음을 들을 수 있다. 무엇보다 바운싱이 좋은 음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그리고 어떻게 재생되는 것이 녹음이 잘 된 것인지 말해주는 듯하다. 듀크 엘링턴과 존 콜트레이가 함께 녹음한 'Stevie'를 들어보면 듀크 엘링턴의 피아노와 드럼에서 클래식 재즈다운 스윙감을 만끽할 수 있다. 엘링턴답게 간결하면서도 비트 있는 임프로바이제이션의 라인이 확실하고, 콜트레이의 탄력적인 톤도 리얼하다. 솔리스트의 개성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며 음악적인 분위기도 좋은 편인데, 재즈에서 서민적인 적나라한 분위기가 기보다는 조금은 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든 여러 장르의 음악에서 크게 낮가림하지 않고 무난하게 대응하며 까다롭지 않은, 그래서 다인오디오다운 스피커가 또 다시 등장한 것 같다. **A**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880만원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재생주파수대역 : 32Hz~25kHz(±3dB) · 임피던스 : 4Ω · 출력음압레벨 : 87dB/2.83V/m · 파워 핸들링 : 250W 이상 · 크기(WHD) : 22.1x109.2x32.5cm · 무게 : 23.2kg